



# 천년 세월로 제련된 불심

## 경주·포항

### # 경주

수많은 사적지와 유물들을 간직하며 불교문화유산의 보고로 이름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해 남산, 반월성, 대릉원, 산성지구를 포함하는 역사유적지구가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으며, 남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천년고찰과 크고 작은 사찰들이 수행과 포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있다.

특히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는 삼국이 통일되어 모든 문화가 골고루 발달하던 시기에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땅위에 옮겨 세워졌다는 한국의 대표사찰이다.

경주에는 불국사 외에도 불교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천년고찰이 즐비하다. 백불사는 이차문의 순교설화로 유명하며, 석굴암은 신비한 조형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원정사의 숲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딴 기림사는 해방 전만 해도 일대에서 가장 큰 절로 불국사를 밑사로 거느렸던 곳이다. 선덕여왕 3년에 건립되어 원효와 자장이 거쳐간 절로 유명한 불향사는 원효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매년 원효재학대제와 원효예술제, 원효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원효사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 10년째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는 분황사는 급년 내로 금당과 모전석탑을 복원할 계획이다.

다 지방과 달리 지역 사암연합회가 없는 경주는 불국사를 중심으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에 70여개의 말사가 지역불교계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국사는 경주시내에 건립한 불국사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불교교양대학과 문화교양강좌 등을 개설, 지역 포교에 힘쓰고 있다. 또, 교도소 봉사활동 시행회인 교정

어린이집 불사를 마치고 어린이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5월 개최하는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는 올해 20회째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생대회로 각광받고 있다.

이밖에 경주에는 조계종 종립 동국대와 진각종 종립 위덕대가 있어 불교적 소양을 갖춘 국가의 동량을 양성하고 있다. 또 경주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연구소와 문화시민단체들이 경주불교문화를 연구하고 보존 계승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경제개발 시대에 주목받기 시작한 신흥도시로 타 종교에 비해 불교세는 미약한 편.

해안 도시의 특수성 탓에 포항도 전통적으로 사머니즘 성격의 무속신앙이 발달했다. 또, 포스코가 들어서면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대형 교회와 3개나 들어서는 등 어느 지역보다 기독교세가 강하다. 때문에 다종단 다종파로 이뤄진 기존 포항불교계의 활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지역 내 종교연합을 주도하고 활발한 대사회적 활동을 펼치며 포항불교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지난해 5월 29일 포항에서 열린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에서 불거진 정장시 포항시장의 종교편향적 행태에 대응해 포항불교계가 '사회와 종교연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범불교대회에는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영남 불교도 3만명이 집결했으며, 정시장의 사과는 물론 기관장 흘러 클레 해체까지 이뤄졌다.

30년 역사를 가진 사암연합회가 다양한 종단 구성으로 그치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후 포항에는 종교간 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4월 26일에는 '지역과 종교계의 화합을 위한 포항 합창 페스티벌'이



불국사 주최로 지난 5월 14일 경주에서 열린 '장애인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 불국사 주지 총상 스님(가운데)과 강주 덕민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장애인, 시민들 1만여명이 참가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경주 불교문화유산 보고...풍부한 인프라 자랑

### 포항 종단·종파 뛰어넘어 지역·종교화합 주도

불자회 청심거사회 협창단 윤불련 등 불국사 산하 17개 신행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국사의 자랑은 500여 명이 넘는 불국사 자원봉사단. 2002년 10월 경주지역 분발사 신도회와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다.

불국사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동도 돋보인다. 불국사는 지난해 9월 경주 동천동에 연면적 1000여 평의 불국사유치원과 성립

그러나 경주불교를 이끄는 안팎에서는 구축된 풍부한 불교 인프라를 통해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더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국사와 두 종립대학, 문화시민단체가 3박자를 맞춰 조화롭게 역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 뜨는 '해맞이의 고장'으로 동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포항은 인구 51만의 과학기술도시로, 세계 제일의 철강 회사인 포스코(POSCO)와 포항공단, 포항

불교연합회(총림사, 문수사, 한마음선원 합창단 등)과 기독교계 합창단(포항아가페합창단, 포항 크리스천 코랄 합창단,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비롯해 포항시립합창단 등 10개 지역합창단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는 지역불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불교 신행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이다. 5월 31일에는 지역의 20여개 신도, 신행단체로 구성된 포항불교 신도단체협의회를 탄생시켰다.

한편 포항불교계에는 기존 사암연합회(회장 남승·윤홍사주지) 외에 포항범불교 사암연합회(회장 범은·무량사주지)가 새롭게 구성됐다. 범불교 관음종 원효종 선종 등 범종단 50여개 사찰이 회원으로 등록된

범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4월 12일 초대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일본의 독도방언 규탄대회를 갖는 등 기존 사암연합회와 차별화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축법회대신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호국선열위령제를 지내기도 한 범불교사암연합회는 12월 15일 범불교대회 1주년기념행사를 준비중이다.

경북에서 가장 먼저 불교계 복지관을 수탁한 포항불교는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이사장 남승)'을 통해 지역복지를 이끌고 있다. 열린가람이 운영하는 무료노인요양원 장애인은 약 1만여 명의 공간에 3천여 명의 잔디구장을 갖추고 지역민들에게 개방해 열린가람을 추구하고 있다.

경주·포항=배지선 기자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전방위 포교 시스템 구축

총상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총상 스님은 조계종 제 11교구본사의 수장으로 경주 불교를 아우르고 있다. 2002년 불국사 주지에 취임한 스님은 분발사 신도회와 불국사 산하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발족해 지역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또 불국사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불교교양대학과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개설해 지역포교와 신도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지난해 지역 최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건립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외 무료급식, 소년소녀 가장집기 등 대사회적 활동에도 열심이다. 불국사의 사각에 맞춘 고건축 양식의 성보박물관과 템플스테이를 위한 연수관, 노인요양시설 건립도 준비중이다.



### 장애인 템플스테이 계획

종광 스님 (경주 기림사 주지,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종광 스님은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된 2001년부터 운영을 맡으며 지역 복지 일선에서 활동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 가로막혀 50명생 집 밖에 나오지 못한 재가 장애인



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종광 스님은 기림사를 장애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6월 하순경 개관예정인 유물 전시관에는 고려말기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260여점의 사책과 견본보살좌상(보물 415호) 등이 전시된다.

### 재가불자 교육·조직 앞장

석관 스님 (경주 보광사 주지)

석관 스님은 재가불자를 위한 포교활동이 미비했던 1990년대 경주시내에 포교당 고불선원을 열고 재가불자를 위한 포교와 교육을 시작했다.

불교교양대학과 노인불교대학 등을 열고, 합창단 어린이회 학생회 등 11개가 넘는 신행단체를 만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활동할 수 있게 이끌었다. 이후 스님의 포교 원력은 포항까지 확대돼 1994년 포항 고불선원이 문을 열었다.



### 어린이법회 특화 호응 커

종문 스님 (포항 죽림사 주지, 포항불교대학장)

2003년 시내증심에 자리한 포항 포교당 죽림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2년째 포항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지역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학생



군 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지역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풍물, 서예, 한문, 요가, 종이 접기 등의 특별활동으로 특화시킨 어린이법회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해병대 훈련병 수계법회는 지역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 지난해 해 동안 문화재 탐방프로그램도 진행했다.

### 수행법회 활성화 박차

용암 스님 (포항 형해서 주지, 천태종 교육부장)

천태종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용암 스님은 지역불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개척의 종교인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법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정례법회 전후 5일간을 기도주간으로 정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참여관음기도로 깨달음을 경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극빈 노인이나 결손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에 불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신도 방문...고통 함께 나눠

해명 정사 (포항 보정심인당 주교, 진각종 사감원장)

해명 정사는 부처님 공부의 핵심이 인과법과 마음법에 있다고 강조한다. 시종일관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해명 정사는 10년 전 보정심인당에 부임한 후, 찾아가는 불교, 활동하는 불교를 주장하며 직접 신고도를 방문하고

통을 함께 나눴다.

또, 보정 유치원과 주1회 어린이 자성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 어린이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진각종 32대 사감원장에 선 출된 해명정사는 위대대 이사를 겸하고 있다.



### 새소자 교회 힘쏟아

운산 스님 (포항 도선사 주지, 총화종 경복종무원장)

경북지역 총화종 소속 50여개 사찰을 이끌고 있는 운산 스님은 매일 셋째 수요일 청송 제1감호소와 제2감호소를 찾아 새소자들의 교화에 힘쓰고 있다. 출가 때 이미 중생제도에 원력을 세웠던 운산 스님은 앞으로 새소자 교회를 총화종 경복종무원의 사업으로 확대시켜 경북 지역 모든 총화종 사찰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병원 환자 위로·신행 상담

무구 스님 (동국대 경주병원 지도법사)

동국대 부속 경주병원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560여 명의 환자와 가족을 위한 600여명의 의료진과 직원의 신행상담으로 하루 해가 빠다.



매년 지역 사찰과 인근 농촌지역의 무료진료활동을 지도해온 무구 스님은 병원 직원들에게 신심을 북돋우면서 의과대학 부속경주병원·한방병원·포항병원 불교회들이 보살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살릴 수 있도록 신행생활을 지도하고



임문환 거사 (초대 포항불교청년회장)

1957년 제6대 포항불교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임문환 거사는 포항불교청년회와 거사법회의 창립회원으로 포항불교 재가단체의 선역사다. 1960년 임문환 거사를 비롯한 포항불교학생회 동문들에 의해 창립됐던 포항불교청년회는 오랜 역사 속에 포항불교청년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발전하여 수행과 포항불교 외환에 앞장서고 있다

진병길 원장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불교의 역사, 문화유산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힘써 온 장본인이다.

경주 영남불교학생회를 거쳐 동국대 대불련 활동을 했던 진병길 원장은 YMCA처럼 대중화된 불교시민문화단체를 만들



##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요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장 우미산 황새굴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요양원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